

# 미국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

## - 미혼모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비교

### Parent and Peer Attachment of American Adolescents - Comparison of Parenting and Nonparenting Adolescents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전임강사 주 은 지

Dept. of Youth Culture & Counseling, Hoseo Univ.

Full-time Lecturer : Joo, Eunjee

---

####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arent and peer attachment of both American parenting and nonparenting adolescents. Do parenting adolescents differ from nonparenting adolescents in their attachment to their parents and peers?

A convenience sample of 190(81 parenting and 109 nonparenting) adolescents were recruited and participated in the current study. The short form of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 developed by Armsden and Greenberg(1987) was used to measure attachment to their parents and peers.

Overall, both parenting and nonparenting adolescents had mor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ir peers than their mothers and only one significant difference in attachment between parenting and nonparenting adolescents were found in the present study. Parenting adolescents reported having less communication with their peers/friends than nonparenting adolescents.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

▲주요어(Key Words) : 부모 애착(parent attachment), 또래 애착(peer attachment), 미혼모 청소년(parenting adolescents), 일반 청소년(nonparenting adolescents)

#### I. 서 론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이들의 신체적인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적·심리적·인지적·정서적 변화로 부모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청소년기에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관한 자아정체감을 찾고자 하며, 자율성을 개발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일 등의

발달과업에 부딪치게 된다. 그 결과,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여전히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가깝게 지내고, 부모가 자신들을 계속 사랑해 주고 보호해 준다는 확신을 받기를 원하지만,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애착대상들(동성/이성친구들, 선생님, 멘토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부모들은 청소년의 주요 애착대상의 위치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된다. 더구나 미국의 문화는 대부분의 일반 청소년들이 일정한 나이 약 18, 19세가 되면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재정적, 심리적 독립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

\* 주 저 자 : 주은지 (E-mail : joorej@hoseo.edu)

따라서 부모에게 덜 의존하고 소원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기는 아동기보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또래 집단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시기이다. 어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에 일부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신뢰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등 친구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부정적인 관계를 맺기도 한다. 청소년의 또래 관계는 이들의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며(김경숙·박미금, 1999), 청소년의 자기 존중감과 만족도, 심리적 복지, 그리고 적응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옥정, 1998). 미국의 일반 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 공동 프로젝트(project), 협동 학습 등을 친구들과 함께하거나, 방과 후의 여유 시간(leisure time)에도 친구들과 취미생활과 운동을 같이 하는 등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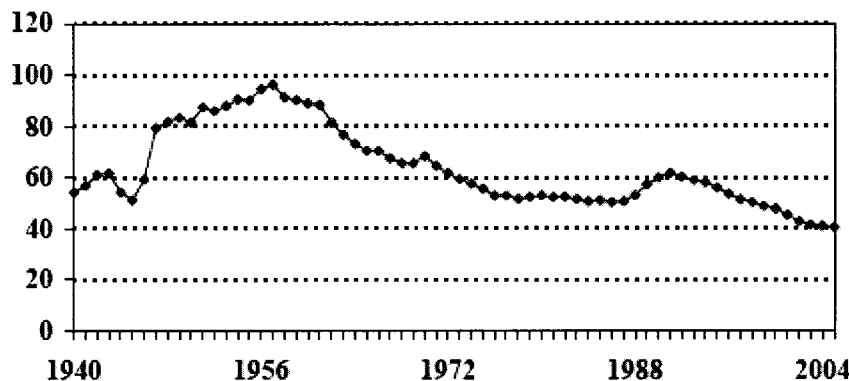
청소년기는 이성과 성에 대한 관심 또한 많아지면서 이성 친구와 교제 혹은 데이트(date)를 시작하며, 이성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발달단계이기도 하다. 이성과의 교제가 개방적인 서구문화의 대표적인 미국은 십대 출산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최근에 청소년들의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과거에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청소년의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캠페인(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Pregnancy)의 자료에 따르면, 1940년부터 1957년까지 미국 청소년의 출산율은 가히 기록적인 78%의 증가를 보였다(<그림 1> 참조).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은 떨어졌지만, 1986년과 1991년 사이에 다시 24% 증가하였다. 이후, 1991년(15~19세 여자 청소년 1,000명당 61.8명)과 2005년 사이에 출산율은 기록적인 35%의 하강을 보이면서 2005년에는 1,000명당 40.4명의 출산율을 보였다. 최근 들어 미국의 청소년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매해 약

100만 명의 미국 청소년들이 임신을 한다. 이 중에서 많으면 5%의 청소년들이 출산을 하고, 1997년에는 전체 미국의 출산율의 13%가 청소년에 의해서였다.

청소년의 출산은 아이의 건강과 복지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무엇보다도 미혼모 청소년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다른 청소년보다 이른 출산으로 신체적·사회적·심리적·감정적 문제들을 수반한다. 저연령모의 출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산과 관련된 문제들, 낮은 자아 존중감, 학업 중퇴 또는 학업의 저성취, 이로 인한 무직업 또는 불안정/저보수 직업을 갖게 되어, 주위의 도움 없이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낮은 수준을 면하기 힘들다. Davis(2002)에 의하면 미혼모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 비교해서 친구들과의 교류도 적고 지지도 덜 받는다. 이들은 또한 출산을 하고도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와 같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청소년보다 더 오랜 기간 부모에게 의지한다(Voight et al., 1996).

청소년 애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이들이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것들이다. 청소년 애착과 청소년의 다른 발달적 분야와 복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부모와 또래들과의 질적인 관계는 자아 존중감과 생활 만족도(Greenberg et al., 1983; Paterson et al., 1995), 심리적 복지(Armsden & Greenberg, 1987; Raja et al., 1992), 그리고 적응도(Cooper et al., 1998; Laible et al., 2000) 등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부모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높은 자아 존중감, 높은 인생의 만족도를 갖고 일상생활에도 잘 적응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부모와 친구들과 가깝지 않고, 이들과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은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소외감/우울함을 느끼고, 의사소통도 별로 하지 않고, 더 위험한 행동들(비행 행동, 이른 성 경험 등)을 시도한다.

청소년의 애착과 인구학적 요인들 즉, 인종(Lopez et al., 2002



<그림 1> 15~19세 사이의 미국 여자 청소년 1,000명당 출산율(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Pregnancy에서 인용)

Arbona & Power, 2003; Wei et al., 2004), 이성 관계 유무 (Brennan & Shaver, 1993), 청소년들의 부모의 결혼상태 (Hazzen & Shaver, 1987; Brennan & Shaver, 1993; Woodward et al., 2000) 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으나 일관성 없는 결과들을 보인다. 즉, 몇몇 연구들은 청소년의 부모의 결혼 상태는 청소년 본인의 애착유형에 영향을 준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이 이성 관계에 있는가 없는가와 청소년의 애착유형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안정된 애착유형의 청소년은 불안정된 애착유형의 청소년보다 이성관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미혼모 청소년의 애착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몇 가지 연구는 단지 이들의 애착유형을 일반 청소년과 중류층 성인들과 비교하거나 이들의 자녀와의 관계를 보는(Ward & Carlon, 1995; Levine & Tuber, 1991) 데에 그쳤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미혼모 청소년들의 애착유형은 일반 청소년이나 성인과 비교하였을 때 덜 안정된 애착유형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미국 청소년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더구나 미국의 미혼모 청소년을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반대로 십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90년대 초반 해도 전체 미혼모의 24.3% 이던 십대 미혼모가 지금은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의 발표 자료(2006)에 따르면, 한국의 미혼모 청소년은 5천명에서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십대의 임신과 출산은 금기시 되고 주위로부터 손가락질과 따돌림을 받으며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미혼모 청소년들은 미국의 미혼모 청소년들보다 모든 면에서 더욱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한국의 미혼모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미국의 미혼모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와 또래 애착을 연구한 본 논문은 한국 청소년의 애착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현재 청소년 애착에 대한 선행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대부분의 청소년 애착의 연구는 일반 청소년, 즉 아이가 없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아이가 있는 청소년의 애착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이므로 일반 청소년들에 관한 애착 연구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둘째, 미혼모 청소년에 대한 대부분의 애착 연구는 이 청소년 애착유형이 그 자녀에 대한 애착유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에 집중되었지 미혼모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까지 일반 청소년과 미혼모 청소년의 애착을 비교 연구한 논문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토대로 본 연구의 주목적은 미국의 미혼모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을 알아보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청소년들에게 부모와의 애착 또는 또래와의 애착 중에서 어느 애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일 것인가?
- <연구문제 2> 과연 미혼모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 <연구문제 3>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선택된 인구학적 변인들(연령, 인종, 이성교제 유무, 청소년들의 부모의 결혼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청소년 애착

애착이란 Bowlby(1969)에 의하면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인 감정적 유대관계라고 정의하였다. 한 개인의 애착유형은 그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기본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애착은 타인과의 접근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기능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이 객관적인 지표인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의 적응 및 행동통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유안진 등, 2005).

청소년 애착에 관한 연구는 Greenberg와 동료들(Greenberg et al., 1983)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청소년의 애착유형을 측정하는 Inventory of Adolescent Attachment(IAA)가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그 후에 IAA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가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들의 연구(Armsden & Greenberg, 1987)에 의하면 안정된 부모 애착을 보인 청소년들은 자아 존중감도 높았고, 또래 애착에서도 안정된 형태를 보였지만, 그 반대로 부모와 덜 안정된 애착유형을 보인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한 분노 또는 소외감을 느끼고 또한 또래 애착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Cooper와 동료 연구자들(Cooper et al., 1998)의 애착유형에 따른 청소년들의 적응도 연구에 의하면, 안정형(secure) 청소년들이 가장 잘 적응하였으며,

불안형(anxious)을 보인 청소년들이 적응을 가장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형(avoidant) 청소년들의 적응도는 이 두 애착유형(안정형과 불안형)의 가운데에 놓였다.

많은 연구들(Greenberg et al., 1983; Raja et al., 1992)은 청소년의 복지(well-being)와 전인건강(wellness)에 부모와 또래와의 관계에서 둘 다 안정된 애착유형을 보인 청소년들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지만, 그 중에서 또래와의 애착보다는 부모와의 애착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반대로 Laible과 동료 연구자들(Laible et al., 2000)은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서 부모보다 오히려 또래 친구들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즉, 또래와 높은 안정성을 보이나 부모와 덜 안정된 청소년들은 그 반대의 경우(안정 부모 애착, 불안정 또래 애착)보다 모든 면에서 좀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상반된 관점과 달리, Paterson 등(1995)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부모와 또래 중 누가 더 중요한가를 따질 수가 없고, 이들은 청소년들의 다른 면에 있어서 각각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자기 존중감과 적응 능력에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는 사회적 능력에 각각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 2. 미혼모 청소년 애착

미혼모 청소년의 애착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Kobak과 Sceery(1988)의 일반 청소년의 연구대상 중 53%가 안정형, Main 등(1985)의 성인 연구대상 중 80%가 안정된 애착유형을 가졌다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Levine과 Tuber(1991)의 연구에서 안정된 애착유형을 가진 미혼모 청소년은 단지 21%였다. 즉, 미혼모 청소년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낮은 비율의 안정형 애착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혼모 청소년들이 가지는 낮은 존중감과 불안정한 애착유형은 아마도 청소년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데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혼모 청소년-그 자녀를 쌍(dyad)로 연구한 논문(Ward & Carlton, 1995; Levine & Tuber, 1991)을 보면 청소년 본인의 애착유형은 그 자녀에게 얼마나 민감하게 대하는가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애착에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된 애착유형을 가진 미혼모 청소년들은 불안정한 애착유형의 청소년들보다 그 자녀들에게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 돌보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 3. 애착과 인구학적 요인과의 관계

청소년의 애착과 인구학적인 요인들, 즉 인종, 이성 관계 유무(有無), 청소년들의 부모의 결혼상태 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첫째, 인종과 애착유형 간에는 일관성 없는 연구결과들이 발견되었다. 히스패닉계(Hispanic)와 흑인들은 낭만적인 관계에서 백인들보다 회피적 애착유형(Lopez et al., 2002)을 보이고, Wei 등(2004)에 의하면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들은 백인들보다 불안정 애착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IPPA(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이용한 Arbona와 Power(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과 인종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청소년들이 이성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또한 애착유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Brennan & Shaver, 1993). 회피형 사람들은 가장 덜 로맨틱(romantic)한 관계에 있고, 안정형이 가장 많은 로맨틱한 관계가 있으며, 저항형은 이 중간쯤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결혼 상태가 어떻게 청소년의 애착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Hazen & Shaver, 1987; Brennan & Shaver, 1993)에 의하면 청소년 부모의 결혼 상태는 청소년 본인의 애착유형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들어났다. 이와 반대로 Woodward 등(2000)은 부모의 별거를 경험한 아이들은 이를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부모와 가까움을 덜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Summers et al., 1998)에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이성 상대에 관한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부모가 결혼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부모가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에 비해서 좀 더 안정적인 낭만 애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인구학적 요인들과 청소년들의 애착유형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일관성 없는 결과들을 보인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미혼모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두 집단으로 나뉘는데 그 중, 미혼모 청소년들은 미국 오하이오 주의 미혼모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도와주고,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GRADS: Graduation Reality and Dual-role Skills)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청소년들은 오하이오 주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서 가정교과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미혼모 청소년 81명, 일반청소년 109명, 총 190명이 적용되었다.

미혼모 청소년의 연령분포는 16세부터 20세에 이르며, 평균 연령은 18.2세(SD=0.98)였으며, 대부분이 백인(67.9%), 다음으로 흑인(14.8%)과 히스패닉(9.9%)이었다. 설문당시 이들 부모의

결혼 상태는 37.5%가 결혼, 42.5%가 별거나 이혼, 혹은 편부모 상태였다. 일반 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6.1세(14세~19세, SD=1.33)였으며, 94.5%가 백인이었다. 이들의 부모는 55.6%가 결혼, 33.3%가 별거나 이혼, 혹은 편부모 상태였다. 미혼모 청소년 부모의 20%가 동거 중이었지만, 반면에 일반 청소년 부모의 약 11%만 동거상태였다. 설문 당시 미혼모 청소년의 80%가 로맨틱한 관계에 있다고 답한 반면 단지 55%의 일반 청소년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 2. 측정 도구

청소년들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Raja, McGee와 Stanton(1992)의 IPPA-개정본(IPPA-R)을 사용하였다.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와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에 바탕을 둔 IPPA-R은 각각 12문항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정·인지·행동적 측면의 애착정도를 측정하며 세 가지 하위영역(의사소통, 신뢰, 소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영역 각 4문항(예; "아버지/어머니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신뢰'영역 각 4문항(예; "나는 내 친구들을 신뢰한다."), '소외'영역 각 4문항(예;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서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치 혼자 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되는데(1점 = 거의 항상 그렇다, 5점= 거의 항상 그렇지 않다), '소외감'영역 문항들을 제외한 모든 부정 문항과 신뢰감들은 반대로 채점된다.

신뢰도의 경우, Armsden 과 Greenberg(1987)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 애착에 대한 Cronbach's  $\alpha$  신뢰계수는 .86에서 .91이었고, 또래에 대한 애착 척도는 .72에서 .91 사이였다. 본 연구의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도 이와 비슷하게 부모 애착은 .74에서 .89 그리고 또래 애착에서 .67와 .76 사이로 나타나 신뢰로운 척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자료의 기본적인 분석을 위해 빈도(N), 백분율(%), 평균(M), 표준편차(SD)를 이용하였다.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검증을 실시하였고, 집단별(미혼모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증(t-test)을 사용하였다. 연령, 이성교제 경험, 그리고 부모의 결혼여부에 따른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각 하위영역의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t-test)과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차이가 유의할 경우 집단비교와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

미혼모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평균적으로 미혼모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두 집단 모두 부모의 '신뢰'와

<표 1> 미혼모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

변 인	집 단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t	
부모 애착	신뢰	미혼모 청소년	80	15.31	4.14	-.00
		일반 청소년	108	15.31	4.45	
	의사소통	미혼모 청소년	80	13.19	4.58	-.30
		일반 청소년	108	13.39	4.50	
	소외	미혼모 청소년	80	9.45	4.13	-1.63
		일반 청소년	108	10.37	3.60	
또래 애착	신뢰	미혼모 청소년	80	16.64	3.21	-1.44
		일반 청소년	109	17.20	2.94	
	의사소통	미혼모 청소년	80	14.73	3.65	-2.04*
		일반 청소년	109	15.71	2.96	
	소외	미혼모 청소년	80	8.53	2.94	0.58
		일반 청소년	109	8.27	3.10	

\*p<.001

‘의사소통’의 점수보다 또래의 ‘신뢰’와 ‘의사소통’의 점수가 높게 나왔으며, 또래의 ‘소외’점수가 부모의 ‘소외’점수보다 낮게 나왔다. 즉,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들 모두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보다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집단(미혼모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에 따른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에 의하면, 또래 ‘의사소통’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t = -2.04, p < .001$ )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들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즉, 일반 청소년들이( $M=15.71, SD=2.96$ ) 미혼모 청소년들에( $M=14.73, SD=3.65$ ) 비해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애착유형 간의 관계

세 가지 하위영역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은 한 가지 영역을 제외하고 모두 서로 간에 1%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부모 애착 내의 하위영역과 또래 애착 내의 하위영역은 서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인다. 부모의 신뢰감과 의사소통 간에는  $r=.77$ 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반면 부모의 신뢰감과 소외감( $r=-.73$ )과 부모의 의사소통과 소외감( $r=-.68$ )은 부적상관을 보인다. 또래 애착 내 하위영역에도 같은 유형을 보인다. 또래의 신뢰감과 의사소통은  $.68$ 의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신뢰·소외는  $-.59$ 와 의사소통·소외와는  $-.32$ 의 부적상관을 보였다.

부모와 또래 애착간의 하위영역들 사이에는 상관이 유의하지만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인다. 부모와의 신뢰는 또래 신뢰와  $.23$ , 또래 의사소통과  $.19$ , 부모의 의사소통은 또래 신뢰와  $.22$ , 또래 의사소통과  $.26$ , 부모 소외·또래 소외는  $.31$ 의 정적 상관을, 그리고 부모의 소외는 또래 신뢰와  $-.21$ , 또

래의 소외는 부모 신뢰와  $-.31$ , 부모 의사소통과  $-.24$ 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 3. 애착과 인구학적 요인들과의 관계

독립변인(연령, 인종, 이성관계, 부모의 결혼상태)과 종속변인(부모 애착, 또래 애착)간의 통계학적 유의성을 조사하기 위해 t-검증(t-test)과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에 있어서 미혼모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사이에 단지 하나의 하위 영역, 즉 또래 의사소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표 1> 참조), 이 분석에서는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을 같이 통합하여 실시하였다.

### 1) 부모 애착

부모 애착의 하위영역에 따른 인구학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는 연령, 이성교제 경험, 그리고 부모의 결혼여부에 따른 부모 애착의 각 하위영역의 t-검증(t-test)과 변량분석(ANOVA)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령과 부모의 결혼 상태의 인구학적 요인들과 부모 애착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와의 ‘소외’는 청소년의 연령,  $F(3, 184)=3.62, p < .05$ , 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후검증(post-hoc analyses)에 의하면, 중간연령(16~17세)대의 청소년들( $M=11.14, SD=3.64$ )이 나이가 많은 집단들(18~19세, 20세)(각각  $M=9.25, SD=4.05$ ;  $M=7.57, SD=4.39$ ) 보다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더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모의 ‘신뢰’( $F(2, 183)=4.31, p < .05$ )와 ‘의사소통’( $F(2, 183)=3.47, p < .05$ )은 청소년의 부모의 결혼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 $M=16.03, SD=3.87$ )은 부모가 별거, 이혼, 혹은 사별한 부모( $M=14.09, SD=4.65$ )에 비해서 부모의 신뢰도가 높았으며,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부모의 ‘의사소통’ 점수 또한 부모가 결혼한 청소년들이( $M=14.01, SD=4.23$ ) 부모의 별거/이혼/사별한 가정의 청소년

<표 2>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 간의 상관관계

	부모 애착			또래 애착		
	신뢰	의사소통	소외	신뢰	의사소통	소외
부모 애착						
신뢰	1					
의사소통	.77**	1				
소외	-.73**	-.68**	1			
또래 애착						
신뢰	.23**	.22**	-.21**	1		
의사소통	.19**	.26**	-.08	.68**	1	
소외	-.31**	-.24**	.31**	-.59**	-.32**	1

\*\* $p < .01$

<표 3> 부모 애착과 인구학적 요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	신뢰		의사소통		소외	
		M	SD	M	SD	M	SD
연령							
14~15	52	15.88	4.14	13.75	4.26	10.29	3.36
16~17	50	14.02	4.45	12.50	4.30	11.14	3.64
18~19	79	15.63	4.21	13.43	4.84	9.25	4.05
20	7	16.71	4.50	14.29	4.50	7.57	4.39
인종							
백인	156	15.26	4.30	13.36	4.52	10.19	3.84
그외	32	15.56	4.40	13.03	4.62	8.94	3.82
이성관계							
없다	65	15.49	4.19	13.17	4.62	10.03	3.53
있다	123	15.22	4.38	13.37	4.49	9.95	4.02
부모의 결혼상태							
결혼한 적 없다	28	15.71	4.21	13.43	4.48	9.64	4.43
결혼	89	16.03	3.87	14.01	4.23	9.78	3.56
별거/이혼/사별	69	14.09	4.65	12.14	4.67	10.51	3.95

<표 4> 인구학적 요인들에 따른 부모 애착의 차이 검증

	신뢰	의사소통	소외
연령 <sup>a</sup>			
F	2.24	0.82	3.62*
Scheffe			2>3, 4
인종			
t	-.36	.37	1.69
이성관계 유무			
t	.41	-.29	.13
부모 결혼상태 <sup>b</sup>			
F	4.31*	3.47*	0.87
Scheffe	2>3	2>3	

\*p<.05

주. a. 1: 14~15세, 2: 16~17세, 3: 18~19세, 4: 20세

b. 1: 결혼한 적 없다, 2: 결혼, 3: 별거/이혼/사별

'>' 표시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년들(M=12.14, SD=4.67) 보다 높게 나타났다.

## 2) 또래 애착

또래 애착의 하위영역에 따른 인구학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는 연령, 이성교제 경험, 그리고 부모의 결혼여부에 따른 또래 애착의 각 하위영역의 t-검증(t-test)과 변량분석(ANOVA)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청소년들의 또래 애착은 연령, 인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또래 '신뢰'(F(3, 188)=4.02, p<.05)와 '소외'(F(3, 188)=2.80, p<.05)'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사후 검증에 의하면 어린 연령층(14~15세)(M=17.83, SD=2.41)과 연령이 높은 집단(18~19세)(M=17.19, SD=2.84)이 중간층(16~17세)(M=15.84, SD=3.52)의 청소년들보다 또래 '신뢰'점수에서 높았다. 반면에 중간층(16~17세)의 청소년들(M=9.29, SD=3.38)은 연령이 높은 집단들(18~19세, 20세)(각각 M=8.09, SD=2.75; M=6.57, SD=2.76) 보다 또래로부터 '소외'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은 또래 '신뢰'(t=2.13, p<.001)와 '의사소통'(t=1.26,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백인(M=17.22, SD=2.82)이 친구간의 '신뢰도'에 있어서 다른 인종(M=15.97, SD=

&lt;표 5&gt; 또래 애착과 인구학적 요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	신뢰		의사소통		소외	
		M	SD	M	SD	M	SD
연령							
14~15	52	17.83	2.41	16.00	2.50	8.15	2.96
16~17	51	15.84	3.52	14.51	3.49	9.29	3.38
18~19	79	17.19	2.84	15.43	3.37	8.09	2.75
20	7	17.43	4.31	14.14	5.21	6.57	2.76
인종							
백인	157	17.22	2.82	15.43	3.10	8.36	2.93
그외	32	15.97	3.96	14.63	4.13	8.44	3.53
이성관계							
없다	65	17.49	2.66	15.98	2.94	8.55	3.16
있다	124	16.76	3.24	14.98	3.44	8.28	2.97
부모의 결혼상태							
결혼한 적 없다	28	17.21	3.37	15.46	4.00	7.68	2.52
결혼	89	17.11	3.02	15.47	3.10	8.22	2.97
별거/이혼/사별	70	16.71	3.02	14.89	3.23	8.89	3.27

&lt;표 6&gt; 인구학적 요인들에 따른 또래 애착의 차이 검증

	신뢰	의사소통	소외
연령 <sup>a</sup>			
F	4.02*	0.82	2.80*
Scheffe	1=3>2		2>3, 4
인종 <sup>b</sup>			
t	2.13**	1.26**	-.13
집단 비교	1>2	1>2	
이성관계 유무			
t	1.57	1.78	0.58
부모 결혼상태			
F	0.43	0.69	1.84

\*p&lt;.05, \*\*p&lt;.01

주. a. 1: 14~15세, 2: 16~17세, 3: 18~19세, 4: 20세

b. 1: 백인, 2: 그 외

'&gt;' 표시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 표시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냄.

3.96)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의사소통' 역시 백인(M=15.43, SD=3.10)이 타 인종(M=14.63, SD=4.13) 보다 친구간의 의사소통이 많았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국의 청소년 중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을 규명하고 인구학적 변인들에 의한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연구문제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평균적으로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들 모두 또래의 긍정적 영역('신뢰'와 '의사소통')에서 부모의 '신뢰'와 '의사소통'보다 높은 점수가, 그리고 또래 부정적 영역('소외')은 부모 '소외'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 두 집단 모두 부모보다는 친구들과 다소 더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부모와 친구의 애착을 비교한 선행연구(지수경, 2001)에서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친구에 대한 애착보다 부모에 대한 애착



의 질을 높게 평가한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하지만, 청소년기가 부모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기라는 발달학적 관점을 뒷받침해 준다.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고, 부모와는 하기 힘든 얘기들(이성문제, 학업문제 등), 좀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친구사이에서 찾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들의 역할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기가 되면서 부모의 허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부모에 대한 탈이상화(de-idealization)가 시작된다. 또한, 청소년기에 새로운 애착대상들, 즉 동성친구, 이성친구, 선생님, 코치, 멘토 등이 나타나고 혹은 그들의 역할이 청소년들에게 그전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부모는 아동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주요 애착대상이라는 지위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 한다(Joo, 2005). 미국의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자녀들은 학교 내에서 또는 학교 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보내면서 부모와 청소년들 간에 의사소통도 적어지고, 신뢰감도 적어지는 반면에 소외감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기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35%에서 14%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한 연구(Larson et al., 1996)가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미국의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 간에는 단지 한 가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또래 '의사소통'에 있었다. 즉, 일반 청소년들은 미혼모 청소년들에 비해서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미혼모 청소년의 부모와 또래 애착에 대한 구체적인 선행 연구가 없지만, 일반 청소년이 미혼모 청소년보다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많다는 것은 Davis(2002)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지지된다. 그에 의하면, 자녀가 있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친구들과 연락도 덜 하고 지지도 덜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미혼모 청소년들은 GRADS(Graduation Reality and Dual-role Skills)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었으므로 임신/출산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고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다른 미혼모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이 일반 청소년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그 예상은 빗나갔다. 일시적으로 단지 몇 가지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 모인 미혼모 청소년들의 친구들은 학교 내·외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반 청소년들의 친구들과 비교해서 우선 의사소통의 양에 있어서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혹은 출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부터 임신/출산과 더불어 '왕따'를 당하여 의사소통의 양도 줄어든 것일 수도 있다. 의사소통의 질에 있어서도 이야기의 주제가 일반 청소년들에게는 주요 관심사가 학교 성적, 대학진학이라고 본다면 미혼모 청소년들에게는 육아와 부모라는 역할에 있

을 수 있게 되므로 공통된 주제들을 함께 나눌 수 없게 되므로 의사소통이 힘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혼모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서 더 오랜 기간 부모와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의존한다고 본 연구(Voight et al., 1996)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도 미혼모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 애착의 하위영역에서 비슷한 점수를 나타냈다. 어린 나이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부모에게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더욱 재정적,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다른 대부분의 미혼모 청소년들에 비해 이 논문의 연구대상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우리나라의 검정고시와 비유)을 따고, 진로를 위한 직업교육, 2차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성교육, 육아, 아동발달에 관한 교육, 부모 교육, 자기 개발(책임감, 성숙함, 자아 존중감 향상 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GRADS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삶을 부모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Kissman & Shapiro, 1990)에 의하면, 미혼모 청소년에게 있어서 친구들로부터의 지지와 많은 의사소통은 이들의 복지(well-being)에 있어서 긍정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혼모 대상의 프로그램에 친구들과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첨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들 둘 다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와 또래의 '신뢰'와 '의사소통' 모두 서로 정적으로 관련되었고, 부모와 또래의 '소외'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부모와 또래 '소외'영역은 서로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믿고 신뢰하는 청소년들은 그들과 효율적이고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반대로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덜 받는다. 또래 애착에서도 같은 패턴이 발견되었다. 이 결과로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 유형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다.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하면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또한 좋은 관계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부모와 덜 안정된 애착을 가지는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분노, 소외감, 그리고 덜 가까운 관계를 보인다고 하여 부모와의 관계가 또래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즉, 초기의 부모와의 관계가 나중에 또래와의 관계에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의하면 몇 가지 인구학적 요인들이 부모와 또래 애착에 관계가 있다. 첫째, 청소년들의 연령이 부모 애착과 관련이 있다. 나이가 어린 연령층(16~17세)은 높은 연령층(18~19세, 20세)보다 부모와 또래로부터 소외된 것 같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는 부모와의 충돌은 청소년기(청소년 전기, 청소년기, 청소년 후기)를 통해서 볼 때, 뒤집

어진 U자형 모형을 보인다고 한 Montemayor(1983)의 이론을 뒷받침 해 준다. 즉, 부모와의 충돌은 초기 청소년기에 증가하고, 중간단계에는 안정되고, 청소년 후기에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또래와의 애착에 있어서는 14~15세의 연령의 청소년들이 타 연령대의 청소년들보다 신뢰도는 더 높고 소외감은 낮았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의 또래 애착이 연령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옥정, 1998)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이는 17세보다 14세의 또래애착이 더 높다고 한 선행연구(유안진 등, 2006)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입시경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미국의 저학년의 연령대 청소년들이 학업 성적과 대학 입학에 더 근접해 있는 16~17세의 청소년들에 비해 친구들과의 신뢰감은 높고 소외감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청소년 초기만 하더라도 학업에 대한 부담도 적고 개인적인 여유시간도 많아서 다른 활동들, 예를 들어 취미생활과 운동 등을 같이 하고 또래 관계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된다(유안진 등, 2006)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14~15세의 연령층은 단지 일반 청소년만, 그리고 18~20세의 연령은 주로 미혼모 청소년에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인종은 또래 애착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백인 청소년들은 다른 인종의 청소년들보다 또래 애착에서 높은 '신뢰'와 '의사소통' 점수를 보였다. 즉, 백인 청소년들이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영역('신뢰', '의사소통')에서 흑인, 히스패닉(Hispanic), 아시아 인종의 청소년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비록 또래 애착과 인종에 대한 구체적인 선행 연구가 없지만, 이 결과는 부모 애착은 인종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종전의 연구(Arbona & Power, 2003)와 일치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청소년들은 백인들보다 타인을 믿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있어서 꺼려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덜 개방적이고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문화적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가 백인이었으므로 이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부모의 결혼상태가 이들의 부모 애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부모가 결혼한 상태인 청소년들은 부모와 또한 높은 신뢰를 보이고 의사소통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부모의 별거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과 비교할 때, 부모와 친근함을 덜 느낀다고 제시한 Woodward 등(Woodward et al., 2000)의 연구 결과와 일관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절반 이상(55.6%)의 일반 청소년들의 부모가 그리고 미혼모의 청소년들의 부모 37.5%가 결혼한 상태였다. 이 결과는 붕괴된 가족 관계에 노출된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Bowlby(1969)의 관점을 명확히 밝혀 주고 있다.

이렇듯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예; 부모의 별거/이혼)을 받은 아이들은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인 애착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선행연구(Summers et al., 1998)에 의하면 특히 청소년기에 부모의 별거나 이혼을 경험은 후의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결혼 상태를 유지한 부모의 청소년들이 이혼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낭만 애착을 보인다. 따라서 부모의 결혼 상태는 그 당시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이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혼모 청소년들과 설문에 동의해 준 선생님들의 학생들이 일반 청소년들만이 편의로 표집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들로 일반화시킬 때 주의를 해야 한다. 둘째, 자기보고식(self-report) 질문지를 사용하여 보고한 사람이 가진 편견과 부정적이 개입하기 쉬운 문제점과 심층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단순히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다른 변화(이성에 관한 관심)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한계가 있다. 청소년기는 이성관성에 관심을 가지고 데이트를 시작하며, 최근에는 그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는 낭만 애착(romantic attachment)에 관한 연구를 보완하면 더 풍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이를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일반화시키는 데 주의를 해야 한다. 한국 청소년과의 비교 연구가 후속 연구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미국의 청소년들의 부모와 또래 애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나라의 부모-자녀와의 유대관계와 친구들과의 관계를 알아본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청소년의 애착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과 반대로 점점 늘어나는 한국의 미혼모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 셋째, 본 연구는 미국의 미혼모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을 처음으로 비교하였다.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미국의 미혼모 청소년을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한 결과, 그들이 일반 청소년과 그리 다르지 않았음을 규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앞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이들 미혼모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과 모든 면에서 뒤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왔던 일반인의 관점을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기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후에 이들이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이성간의 애착이나 일반적인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었다. 따라서 부모나 친구들과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거나 적절한 상담이 초기에 개입되면 이들도 건전한 이성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접수일 : 2007년 05월 15일
- 심사일 : 2007년 05월 23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7월 13일

#### 【참 고 문 헌】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http://youth.go.kr/>
- 김경숙·박미금 (1999).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 및 그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2(1)**, 33-45.
- 육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전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이점숙·정현심 (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유안진·이점숙·정현심 (2006). 또래 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31-41.
- 지수경 (2001).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rbona, C. & Power, T. G. (2003). Parental attachment, self-esteem, and antisocial behaviors among African American, Europe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40-51.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Y.: Basic Books.
- Brennan, K. A. & Shaver, P. R. (1993). Attachment styles and parental divorce.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1 (1/2)**, 161-175.
- Cooper, M. L.,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380-1397.
- Davis, A. A. (2002). Younger and older African American adolescent mothers'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and female pee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7**, 491-508.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373-386.
- Haze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Joo, E. (2005). *Attachment styles of female parenting and nonparenting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Kissman, K. & Shapiro, J. (1990). The composites of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among adolescent mo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2**, 165-173.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 (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45-59.
- Larson, R. W., Richards, M. H., Moneta, G., Holmbeck, G. & Deckett, E. (1996). Changes in adolescents' daily interactions with their families from ages 10 to 18: Disengagement and transform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2**, 744-754.
- Levine, L. V. & Tuber, S. B. (1991). Mothers' mental represent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mother-infant attachment.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5**, 454-470.
- Lopez, F. G., Melendez, M. C., & Rice, K. G. (2002). Parental divorce, parent-child bonds, and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among college students: A comparison of three racial/ethnic group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77-186.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pp. 66-106).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209).
- Montemayor, R. (1983). Parents and adolescents in conflict: All families some of the time and some families most of the tim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83-103.
- 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Pregnancy.  
[www.teenpregnancy.org](http://www.teenpregnancy.org)
- Paterson, J., Pry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365-376.
- Raja, N. S.,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471-485.
- Summers, P., Forehand, R., Armistead, L., & Tannenbaum, L. (1998). Parental divorce during early adolescence in Caucasian families: The role of family process variables in predicting the long-term consequences for early adult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327-336.
- Voight, J. D., Hans, S. L., & Berstein, V. J. (1996). Support networks of adolescent mothers: Effects on parenting experience and behavior.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7, 58-73.
- Ward, M. J., & Carlson, E. A. (1995). Associations among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mother attach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66, 69-79.
- Wei, M., Russell, D. W., Mallinckrodt, B. & Zakalik, R. A. (2004). Cultural equivalence of adult attachment across four ethnic groups: Factor structure, structured means, and associations with negative moo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408-417.
- Woodward, L., Fergusson, D. M., & Belsky, J. (2000). Timing of parental separation and attachment to parents in adolescence: Results of a prospective study from birth to age 16.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62-174.